

민족통일 열망의 대잔치

현장취재

범민족대회 의의와 조국통일 전망

I. 범민족대회 진행상황

올해의 통일운동은 12일에서부터 시작된 범민족대회전인 4일부터 통일선봉대의 국토순례대행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통일선봉대는 크게 비핵군축, 연방제 선포 2팀으로 나뉘어 각각 부산과 광주를 출발하여 12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

12일부터 시작된 범민족대회는 첫날에는 1만 2천명 경찰의 원천봉쇄로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하게 치루어졌으나 둘째 날부터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다수의 시민, 학생이 가담하여 3만여명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

13일에는 범민족대회 청년학생 환영단파견 및 대국민가두시위 출정식이 본대회장인 본교에서 6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파견출사로 민자통 이천제선생, 진관선님이 낭독하였다.

같은날 오후에는 김희선 범민족대회추진본부부장의 사회로 '국토순례대행진과 한반도 비핵화

대회, 불가침선언 및 서명운동경과 보고 및 범민족대회 시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서명운동 경과보고에서 김인식 서울대 조동위원장은 "총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추후에 비핵군축에 대한 입법화투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오후 8시에는 전국대학생총일 노래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된 이날행사에서는 각 학교에서 예선을 치른 중앙대, 전남대 등 21개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치렀다.

본교에서는 서울캠퍼스의 '공상각자우', 수원캠퍼스의 '새벽'이 참가하여 공상각자우의 '통일은 땀'이 단결상을 수상하였다.

다음날인 14일에는 통일학생축전 정치회담 남측결의대회, 91년 서울범민족대회 연구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오후 11시 20분부터는 전야제가 열렸다.

1부 91년 범민족대회 성사 및 1995년 통일정치를 위한 결의대회, 2부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문화제 순으로 치루진 전야제에서 전민련의장 지선스님은 "통일운동이 감성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운동에는 꿈과 낭만이 있으며 오늘 상황은 삼국시대와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반외세 반봉건 투쟁을 지속시키고 더불어 통일전선을 전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은 남한반도권력을 둘러싼 통일투쟁임을 인식해야하고 메시지가 매사안에 즉각 개입하여 노동운동권과도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통일은 바로 노동해방혁명을 위해 복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과 16일에는 판문점 전격투쟁과 폐회식이 있었다.

통선대, 전국적 통일열기 확산에 한 몫 자주적 교류 확대하여 '범민련'강화 주력

II. 범민족대회의 의의

지난 13일부터 4일간 본교 노천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범민족대회는 9일부터 1만2천의 경찰병력을 투입한 정부의 엄청난 탄압속에서 진행되었다.

범민족대회는 우선 작년에 조국통일투쟁에서 진행되었던 전면개방, 자유왕래라는 추상적인 목표들을 좀더 구체화시켜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

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핵군축을 커다란 목표점으로 내세우고 이와같은 목표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 올해 초 가시화되자 정부의 계속적인 탄압으로 수세적인 상황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루어 범으로 해서 탄압에 대한 공세적인 위치를 점유하는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목적들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달성한 반면 작년 범민족대회와 같이 올해도 범민족대회의 실무주체가 전대협을 비롯한 학생이었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민족의 범민족대회는 정부의 통일인사 구축,



△전야제날 결의문 낭독모습(上) 및 전농관계자의 깃발 흔들는 모습(下)

III. 이후 조국통일투쟁의 전망

우선 범민족대회이후의 조국통일투쟁은 남한, 북한, 해외동포를 총망라한 범민련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전제 하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선 범민족대회 기간과 준비기간에 이루어졌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불가침선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합법성을 획득해내기 위한 비핵입법화투쟁

을 임시국회에서 벌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남, 북, 해외의 전민족적 연대를 위한 자주적 교류의 추진이다.

이것은 7월부터 8월기간중에 이루어졌던 서울지역대학신문기

(오세운 기자)

노조 약화시킨 '임투'

기획취재 '91년 노동조합 임금협상 평가

본교 노동조합과 학교당국의 91학년도 임금협상이 지난 7월30일 타결되었으나 관리직, 환경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원들 사이에 임금투쟁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17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친 임금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 최종 임금협상을 결정해 학교측과 합의에 들어갔다.

임금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노조측의 요구안은 △정액·정율 인상의 혼합 △상여금 1백% 인상 지급 △운전반을 제외한 서울 기능직에 2호봉 승급(1호봉승급: 1만1천원) △환경직 환경수당 1만원 △장기근속수당(1~10년: 2만원, 10~15년: 3만원, 15~20년: 4만원)으로 평균 19.98%의 임금 인상을 나타냈다.

이 요구안은 대의원회의를 통

해 결정되어 학교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학교측의 정액인상과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거부로 2차협상에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교섭위원들내에서 수정안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직 운영위원 이훈용(본관 우원동담당)씨는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내놔야 했다"며 당면히 임금소위원회를 통

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강한 지도력을 발휘, 앞으로의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노조원들이 제기하는 이번 임금투쟁의 오류중 하나가 지도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노조 조직력 결속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임금투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조원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속력일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도 이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

런 부분을 노조 집행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노조원들이 이번 임금투

(김기태 기자)

민주적절차 무시, 노조원들 강한 불만 집행부 강력한 지도력으로 결속 다져야

만들어 제시하고 지난 7월29일 파반수가 약간 넘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원래의 요구외에 학교측이 거부한 정액인상에 대해 1만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관리직, 환경직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 노조원들은 '원래 규약상에도 명시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노조 교섭위원들은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노조집행부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직 운영위원 이진욱(경정대 교수회관) 씨도 같은의견을 피력하기도했다.

이진욱씨는 "이번 임투는 객관적 정세의 불리함과 노조 자체내의 문제점으로도 인해 실패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노조는 위원장

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앞서 말한 부분, 즉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임금투쟁에 임했어야 했다는 것과 임금투쟁을 노동조합의 양적·질적발전으로 바라보면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투쟁이 숫자놀음만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과 동시에 직종간의 왜곡이 야기되는 안일 것이다.

이번 임금협상이 끝나고 난 후 관리직쪽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我田引水」-이 말은 흔히쓰는 고사성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세태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이 처하게 될 어떤 상황에도 조공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는 목구멍이 터져라 외쳐대면서도 남의 목소리는 그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현재 학내 곳곳에는 공간부족의 어려움이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충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학생회관 4층 식당에 불법적(?)으로 칸막이를 설치, 동아리방과 회의실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동연, 我田引水 격 행동 지양해야

하고 있다. 동연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4층 식당은 이용학생이 별로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연내 카피웬팅, 경영시스템 연구회, 경회사건연구회 등 3개 동아리가 방이 없는 상태이며 기타 공간부족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도회와 경영시스템연구회와의 갈등이다. 원래 서도회는 학생회관 6층 동아리방을 단독으로 사용해 오다가 동연과 합의하여 경영시스템연구회에 약간의 공간을 내주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8월말까지 식당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시스템연구회는 동연 사무실에 빈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교시탐구 뿐만아

니라 학생들도 '이해는 가나 인정은 못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우선 동연측의 행동, 즉 전체 학생들을 위한 복지공간을 관계당국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동연측이 주장하고 있는 식당의 효율성문제도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공간부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도회측의 주장도 억지(?)가 아닌듯 싶다. 동아리연합회측이나 서도회측의 이런 행동은 공간부족의 심각성을 살펴볼 때 납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침해한 것은 지나친 '자기 목소리 높이기'가 아닐까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께!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에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단 기 학 자 금		대출후 1년 이내	0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 기 학 자 금	85. 8. 1 이전 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 이내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 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 8. 1~89. 12. 21 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 이내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 납입
	89. 12. 22 이후 대출과	"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단위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본 감안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학년도 2학기 V.O.U. 방송 편성 안내

서울캠퍼스

월 화 수 목 금 토	
08:30	캠퍼스로 가는 길
:50	뉴스
:55	아침의 산책
12:00	낮뉴스
:05	캠퍼스 신호등
:10	함께하는 민중가요
:15	고령교 포항 명예시하늘 한소리 여보세요
:25	25시 개담회 의정반으로 열망가장 잠만요
:35	
16:30	종합 뉴스
:40	알고 씁시다
:45	소리와 그늘이 우리들의 매체속 V.O.U.
:55	공간 오면 세 계 기화시리즈 기자석
17:10	사색의 길
:15	

수원캠퍼스

월 화 수 목 금 토	
09:10	아침나당
:20	뉴스
:30	V.O.U 캠페인
12:30	뉴스와 해설
12:45	음악이 있는 오후
13:00	취체스크립
:05	V.O.U 기자석 보도기회 "우리 이 시대에..."
:15	취체스크립
:25	취체스크립
:30	취체스크립
16:30	뉴스
:40	V.O.U 캠페인
:45	명곡의 선 울
17:10	명곡의 선 울
:15	오늘의 만남속에서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